

삼성전자, 초소형 비즈니스 컬러 레이저 프린터 출시



컬러 레이저 프린터와 복합기 시장에서 국내 1위·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다양한 사무 환경에 최적화된 초

소형 비즈니스 컬러 레이저 프린터 CLP-351NK를 출시하였다.

세계 초소형 컬러 레이저 프린터인 CLP-300의 비즈니스용 업그레이드 모델인 CLP-351NK는 출력량이 많은 중소 규모 사무환경에 최적화해 출력 속도와 토너 용량을 높이고 다양한 옵션을 장착해 사용성을 확장시켰다.

CLP-351NK는 최고 2400x600dpi의 해상도로 고품질 컬러 출력이 가능하며, 흑백은 분당 19매, 컬러는 분당 5매 속도의 빠른 인쇄가 가능하다. 또 출력량이 많은 초소형 사무실 고객을 위해 토너 용량을 흑백 4000매, 컬러 2000매로 늘려서 잦은 토너교체에 대한 부담을 줄였고, 250매의 추가 용지 공급 카세트를 옵션으로 채택하여 출력량이 많은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CLP-351NK에는 CLP-300와 마찬가지로 삼성만의 독특한 원통형 토너를 채용해 손쉬운 토너교체 등 사용자 편의성을 크게 늘렸을 뿐만 아니라, 잡지를 펼쳐 놓은 정도의 작은 크기(가로 39cm, 세로 42cm, 높이 27cm)로 사무공간에서의 공간활용성이 뛰어나며, 삼성전자가 독자 개발한 저소음 설계 방식인 '노노이즈(No-Noise: Non Orbiting Noiseless Optic Imaging System)' 기술이 적용되어 조용하고 쾌적한 사용 환경을 조성한다.

LG전자, '글로벌 로밍 WCDMA폰' 출시

LG전자가 10월 4일 전세계 121개 국가에서 자동 로밍이 가능한 '글로벌 로밍 WCDMA폰'을 출시하였다.



이 제품은 영국, 호주, 홍콩, 일본 등 WCDMA(비동기 3세대이동통신)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41개 국가 간에는 영상통화를, 117개 GSM(유럽식 이동통신방식) 국가에서는 일반 음성통화를 자동 로밍 서비스 할 수 있다.

이 제품을 이용하면 방콕, 괌, 발리와 같은 해외 관광지뿐만 아니라 유럽 북미, 중남미,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121개국 10월 초 현재에서 별도 로밍폰이 필요 없이 자신의 휴대폰과 번호로 통화가 가능하다.

'글로벌 로밍 WCDMA폰'에는 신용카드나 통장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비밀 수첩을 비롯해 전자사전, 이동식 디스크, 단위 변환기, 지하철노선도 등 각종 편의기능을 갖췄다. KTF를 통해 출시하며 가격은 30만 원대 중반이다.

한편, 지난해 1% 미만에 불과했던 국내 휴대폰시장에서의 3G폰 판매 비중은 지난 9월말 누적 360만대를 돌파하며 점유율을 30%에 육박했다. 특히 9월의 경우 47%선 까지 그 비중이 높아지는 등 시장에서의 3G폰 수요는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다.

LG전자 MC사업본부 한국사업부장 황경주 상무는 "국내 3G 서비스 원년인 올해 LG전자는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3G폰을 선보여왔다" 라고 말하고, "향후에도 고객 개

개인에 최적화된 사양과 꼭 필요한 기능을 탑재한 다양한 3G폰을 선보여 시장을 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셈투유, 센서인식으로 책 읽어주는 '모바일 라이브펜' 개발



부모를 대신해 동화책을 읽어주는 펜이 나왔다. 센서 모듈과 시스템을 개발·생산하고 있는 셈투유는 최근 글씨를 음성이나 화면으로 재생할 수 있는 책용합 모바일 라이브펜을 개발했다.

이 제품은 특수 코드알고리즘을 입힌 학습교재에 갖다 대면 내부에 장착된 광학 센서가 작동해 단어나 문장을 음성으로 재현해주며 LCD창을 통해 글씨까지 화면으로 보여준다. 또 무선통신을 이용한 전송 기능도 갖추고 있어 20m 정도 거리에서도 무선 이어폰(블루투스)만 착용하면 음성을 듣거나 화면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펜 내부에 음성과 문자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동화책이나 음악파일 등을 저장·재생100시간 정도해 들을 수 있다.

김경호 대표는 "이번에 대량 생산에 성공한 모바일 라이브펜은 펜 자체만으로도 음원 구현이 가능하고 무선 송출 기능까지 있어 개인은 물론 학원 같은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제품은 최근 산업자원부에서 차세대 일류상품으로 지정받았다.

보쉬, 레이저 거리측정기 출시

한국보쉬는 레이저를 이용해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거리측정기(모델명 DLE 50)를 출시했다고 지난 8월 27일 밝혔다.

신제품은 세계 최소형 포켓 사이즈로 개발돼 휴대가 간편하고 레이저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최상의 정밀도를 자랑한다



특히 직선거리 또는 공간 면적을 측정하는 데 용이하며, 최소 5cm부터 측정이 가능하다. 가정에서는 가구, 커튼 등 길이를 재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사무실 파티션 및 현수막 설치 등 일상 생활속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한국보수 관계자는 "페인트작업자, 인테리어 마감작업자 및 부동산 감평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이로봇, 2세대 청소로봇 출시

아이로봇이 2세대 청소로봇을 내놓았다.



룸바' 라는 청소로봇 개발업체로 잘 알려진 아이로봇은 기존 1세대 룸바의 기능을 크게 개선한 청소로봇 두 개 모델을 이달부터 판매하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룸바 530·560'으로 이름 붙인 이 제품은 자체 웹사이트와 아마존 등에서 선보이고 가격은 250달러와 399달러다.

이들 제품은 1세대 모델과 비교해 내구성을 보완했으며 흡인력이 두 배 가까이 강해졌다. 인공지능 기술을 탑재해 보다 똑똑해졌다. 1세대 모델의 문제점이었던 전기선이 꼬이는 문제를 해결했으며 벽과 같은 장애물에 접근할 때는 자동으로 속도가 느려져 충격을 줄일 수 있다.

아이로봇 측은 "하루 45분 청소를 기준으로 3~5년까지 무리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가정용 청소로봇을 개발한 아이로봇은 5년 전 출시한 1세대 룸바를 200만대 가량 판매했다.

삼보, 페이지리 문양 노트북PC 출시

삼보컴퓨터는 여러 가지는 곡선무늬를 짜 넣은 페이지리 패턴 노트북PC '에버라텍 2500'을 10월 1일 출시했다.



'새롭게 옴트는 새싹 이라는 주제로 디자인된 신제품은 페이지리 문양을 적용해 전면에 손으로 직접 그린 듯한 섬세한 무늬를 새겨 넣었다. AMD 튜리온 프로세서를 탑재한 에버라텍 2500은 윈도비스타 운영체제를 탑재했으며 120GB 하드디스크와 DVD 슈퍼멀티 드라이브, 130만 화소 PC 카메라를 기본으로 탑재하고도 1.8kg의 초경량으로 이동 편의성을 제공한다.

회사측은 120만 원대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대 성수기인 4분기 서브 노트북PC 시장을 집중 공략할 계획이다.

삼보컴퓨터 관계자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노트북PC, MP3P, 디지털 카메라 등 이동형 IT기기는 사용자의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패션코드가 되고 있다"며 "최적의 성능과 독특한 디자인을 갖춘 제품군으로 소비자의 시선을 사로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PC뱅크21, 30인치 모니터 출시

피씨뱅크21은 넓은 대형화면에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채택한 30인치 와이드 LCD 모니터 'PBM-V300W·사진'을 9월 19일 출시했다.

신제품은 2560×1600 해상도와 풀 HD를 지원하며 700대 의 명암비, 11msec 응답속도를 제공한다.



DVI 커넥터를 채택해 떨림이 적고 금속 재질의 외관은 납 등 유해물질을 제거한 아노다이징 방식으로 크롬 도금처리해 TV 컨셉트를 최대한 살렸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프린트와 스탠드는 블랙컬러로 백커버는 블루블랙으로 디자인해 전사장이나 인포데스크, 각 매장의 인테리어 및 홍보용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레노버, 태양력 PC 첫 출시



레노버가 태양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스크톱 PC를 첫 출시한다. 싱크센터 A61e·사진'으로 명명된 이 PC는 사용자 선택에 따라 태양전지패널(판)을 켜고 끌 수 있다.

2GHz 셀트론 프로세서, 512MB램, 80GB 하드디스크드라이브를 채택한 베이식 모델 가격은 399달러. 2.1GHz 애슬론 듀얼코어와 2GB 램, 160GB 하드디스크드라이브를 장착한 고급 모델은 799달러이다. 모니터의 경우, 이집게도 태양력을 사용할 수 없으며 기존처럼 전력을 공급받아야 한다.

레노버 측은 "A61e를 쓰면 연간 20달러의 전력비용과 뉴욕~보스톤 편도 비행기가 내뿜는 정도의 이산화탄소량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레노버는 이르면 다음달 미국에서 먼저 A61e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